

보건복지부의 힘찬



崔 洸
보건복지부 장관

보

건복지부 직원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인연중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본인은 오늘부터 대통령 각하의 명을 받아 여러분과 함께 국민건강을 지키고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국민보건과 국민복지 두 단어가 평상시에도 자주 저의 머리 속에 스쳐 지나가고, 국가운영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왔지만, 오늘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막상 서고보니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막중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 생각이 되며 솔직히 말씀드려 중압감과 더불어

어 무거운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문민정부가 앞으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 특히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정부의 임기완료 여부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가져서도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8개월만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하여 새로운 세기를 여유있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에는 아직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으나 우리가 처한 제반 여건은 너무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몇 달과 다음 정부 초기의 기간은 우리의 21세기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다같이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

늘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당부를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평상시의 소견을 몇 가지 피력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여러

항진을 기대하면서 오 늘

분과 시간을 두고 토론·협의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원칙론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보건복지정책을 다루든 개인적인 업무와 관련하여서든 ‘기본’에 충실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정책은 물론이고 모든 주요 국가정책은 ‘기본’에 충실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맥점을 정확히 잡고, 원리원칙에 따라 진단 처방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간 고민해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의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난국 해결의 최선의 처방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먼저 인식되어야 할 부분은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불과 40년 전 기초적인 삶의 영위조차 힘들었던 절대빈곤에서 이제 ‘삶의 질’을 논의하는 단계에까지 도약한 점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제를 선진경제라 생각하는 분도 적잖이 있을 것이나,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선진국이 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제대로 된 중진국으로서의 정착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도도, 국민의식도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밖으로 보기에선 번드레하나 내부는 부실로 딱 차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가 아납니까?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이미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수많은 외형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문제가 산적하여 있으며, 미해결의 과제가 너무도 많음을 우리는 바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시야와 관심을 국·내외로 돌리고, 우리의 시계(視界)를 넓혀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종합성(整合性)있게 찾아내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현실을 냉정히 관찰하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합니다.

문제의 정확한 진단 및 처방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뜨거운 가슴(warm heart)’과 ‘차가운 머리(cold head)’라는 개념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정책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정책을 논의하면서 뜨거운 가슴에 뜨거운 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현실의 문제가 뜨거운 머리로 해결된 경우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보건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뜨거운 머리가 작동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판단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보건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고자 하면 할수록 가슴은 뜨겁게 유지해도 머리는 반드시 냉철하고 차가워야 합니다.

정치는 막바지에 가서 벼랑끝 협상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정책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안이하게 대충대충 하다가 위기가 닥쳐서 열심히 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에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하여 정책이 입안·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경제와 같이 하는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은 시장과 다른 원리에 따라 생성되었기에 시장원리에 따라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자 하면 보건복지정책을 포기하자는 발상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시장기능을 제대로 살릴 때만이 보건문제, 복지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재빨리 적응하는 민족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 사고에 적응치 못한 민족은 망하여 갔습니다. 우리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세계경제를 지배할 사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입니다. 보건정책도 복지정책도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시장경제 원리를 거역하면서 추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시장원리를 잘 활용하여 정책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스스로 없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보건과 국민복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와 같이 하지 않는 보건과 복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시장경제와 같이 가야만 합니다.

시장과 함께 하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앞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계속 논의하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규제와 통제으로써 이해 당사자를 강제로 끌기보다는 가격기구를 활용하면 쉽게 효율적으로 목표가 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대의 변화와 공직자의 자세문제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연출자임을 자임하던 관료사회가 문민정부 들어 개혁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기류저변에는 우리 경제의 주역이 ‘관(官)에서 민(民)으로’ 바뀌는 권력이동(power shift)이 질게 깔려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위원회와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찰하여 온 공무원의 여러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공무원들은 자기 본위의 기준과 잣대가 너무 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혹평을 하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자의 처신입니다. 즉, ‘프로크루스테스적(Procrustean)’이라는 말씀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인으로 쇠침대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잡아오면 그 침대에 누어봐 침대보다 키가 크면 그만큼 잘라 버리고, 짧으면 억지로 잡아 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완화를 몇 건씩 했습네’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불평이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네 관료가 프로크루스테스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고정관념(쇠침대)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변화고 변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엄청난 속도로 변해갑니다.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사회에서 제조업을 중시해 온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지배적인 법

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시대에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보다 보편적 현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법칙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처방전이 자동화되어 종합병원에서 약을 타는 데 10분이면 족하고, 이발소에는 자동면도기와 강력흡입기를 두어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이발하는 데 1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발비도 기존 이발비의 4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스피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는 남들이 보기에 안쓰럽고 스스로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 밖에서는 ‘세상이 다 바뀌는데 관료들만 바뀌지 않는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료사회도 나름대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신의 속도가 느리다는 소리가 많고, 또 느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시간이 걸리고 분명히 고통스러울 것이나 여러분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세 번째 강조사항을 시작하면서 관료사회가 융통성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자신들의 위치·처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보유한 권한을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료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수립·집행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입니다. 시장에서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은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상품을 가장 싸게 공급해야 시장에서 버티 나갈 수 있습니다. 정책의 수립·집행이라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자는 국민입니다.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불량제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제공해 본적이 없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불량품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자세를 잘 가다듬어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경제학자 갈브레이스는 “한 국가의 발전은 관료들의 청렴성과 생산성에 좌우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개발연대가 끝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과 ‘청렴성’에 대하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이기에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한은 여러분이 가장 명심해야 할 두 단어라 생각합니다.

한

제 우리 관료사회가 발가벗겨지고 질타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여건도 만들어야 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여 우리 보건복지부가 과천에서 제1등 부서 아니 세계 모든 나라의 보건복지 관련 부처 중에서도 가장 생산적

인 부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관료들이 다시 뛰지 않고는 다가오는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임기에 상관없는 국민의 공복(公僕)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님께서 많이 와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 도움을 청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정책은 국민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특별한 비결은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전달하고 민심을 바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심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입안·시행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정부가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정직·정확한 홍보야말로 정부정책을 성공시키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님들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부가 잘하는 일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하는 일에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정부정책 시행의 동반자로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때만이 정부정책이 힘을 얻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국민복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앞에 두고 모든 정책의 시행을 국민과 함께 하며, 언론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정책의 목표와 언론의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 제전쟁·기술전쟁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보다 나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호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조타수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를 책임 맡으셨던 훌륭한 전임장관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제가 받고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가족여러분이 각자의 책무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전체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보건복지호는 격랑을 헤치고 밝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기항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적극적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